

금융의 더 큰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현대able Daily



2014년 8월 28일 (목)

Derivatives Issue

변동성을 통해 본 지수는 중기 상승 추세 연장

외환 월간 전망

엘런, 그녀가 변하면 환율도 변한다

안정성장형 포트폴리오

SK, KCC, 빙그레, 한전KPS, KT, CJ, 삼성증권, 강원랜드, KB금융 등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일진홀딩스, 삼보모터스, 동성홀딩스, CJ E&M, 에스피지, 아바텍 등

차트 및 수급 관심종목

이수페타시스, 대우증권, 에스텍

기업

에스에프에이, 엘엠에스

선물옵션 지표

증시관련 지표

✓ 현대증권 투자컨설팅센터

	이 름	직 책	담당업무	사내번호	E-mail
	김임규	센터장	투자컨설팅 업무 전반 총괄	1691	imgyu.kim
투자정보팀	류용석	팀장	시황 및 투자전략/ 매크로 및 SPOT 이슈 분석	1644	ys.rhoo
	임상국	연구위원	트레이딩 전략/ 종목 이슈 및 테마 분석/ 스몰캡	1650	sk.im
	김철영	연구위원	포트폴리오 전략/ 종목 이슈 및 스타일 분석	1664	cy.kim
	배성진	수석연구원	시황 및 투자전략/ 산업 및 업종 이슈 분석	1660	sj.bae
	배성영	수석연구원	시황 및 투자전략/ 매크로 및 SPOT 이슈 분석	1651	sungyoung.bae
	공원배	연구원	파생시황 및 파생상품/ 인덱스전략/ 글로벌 유동성 분석	1648	wonbae.kong
	노주경	연구원	국내 유동성 및 수급 분석/ 데이터 관리	1653	jukyong.noh
글로벌자산전략팀	오온수	팀장	글로벌 자산전략/ 간접투자증권(펀드)/ 유망자산발굴	1661	onsu.oh
	손동현	책임연구원	원자재전략/ 대안투자(ELS/DLS)/ 유망자산발굴	1662	dh.shon
	손위창	책임연구원	글로벌 주식전략(선진국)/ 유망자산발굴	1652	wc.son
	윤정선	책임연구원	글로벌 주식전략(신흥국)/ 산업분석 및 이슈/ 유망자산발굴	1655	js.yoon
	오재영	연구원	글로벌 채권 / ETF/ 유망자산발굴	1668	jaeyoung.oh
able컨설팅팀	이 희	팀장	자산컨설팅/ 해외펀드·채권·대안투자·유동성	1663	h.lee
	민경섭	연구위원	외환컨설팅/ 환헤지 및 환투자, 외환교육	1647	ks.min
	김영각	연구위원	자산컨설팅/ 고객 보유 주식 평가 및 제안	1656	yg.kim
	왕현정	수석연구원	세무컨설팅/ VIP고객 세무자문(금융·양도·상속·증여 등)	1666	hj.wang
	한지윤	책임연구원	외환컨설팅/ 외환시황 및 데이터	1670	jy.han
	장성애	책임연구원	컨설팅 지원/ DB관리	1667	sa.jang
	김경남	연구원	세무컨설팅/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관리 종합컨설팅	1659	kyungnam.kim

■ 전화: 02.6114+ 사내번호 ■ E-mail + @hdsr.com

현대증권에서 발간하는 모든 리서치 자료는 현대증권 홈페이지인 www.youfirst.co.kr의 [투자정보] 메뉴를 통해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 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이슈 [14-14호] : 현대 D-Wave

변동성을 통해 본 지수는 중기 상승 추세 연장

SUMMARY

- ✓ 코스피 지수와 선물 외국인 포지션은 유사한 궤적. 최근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매 빈번→ 이벤트성 단기 성향의 매매 패턴.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상승 유효.
- ✓ 변동성 점검을 통해 지수의 추세 지속 가능성 점검. 변동성은 장기 평균회귀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변동성 전망은 지수 전망과 유사한 효과. 변동성의 하향화가 시장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저변동성 양상→ 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동성 확대가 지수 상승 유발. 지수 박스권 돌파 이후 변동성은 저점을 높여가며 변동성과 지수의 동반 상승 전망.
- ✓ 변동성만으로 판단시,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 높음. 상대강도 및 변동성을 활용한 예상 변동 지수대 역시 안정적인 상승을 뒷받침. 즉, 지수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 숨고르기 수준의 조정 예상.

글로벌 유동성 증시에 우호적인 환경 제공→ 선물 외국인 환매수 이어질 것

코스피 지수와 선물 외국인 포지션은 유사한 궤적 → 재차 매도 스탠스로 전환

- 코스피 지수와 선물 외국인의 누적 포지션이 유사한 궤적을 보이고 있음. 외국인의 전반적인 포지션은 7월 중순부터 지수가 연중 고점을 기록했던 7월말까지 대규모 누적순매수를 단기간 기록 후 8/21일 대규모 매도(약 -12,000계약)를 포함 재차 매도 스탠스로 전환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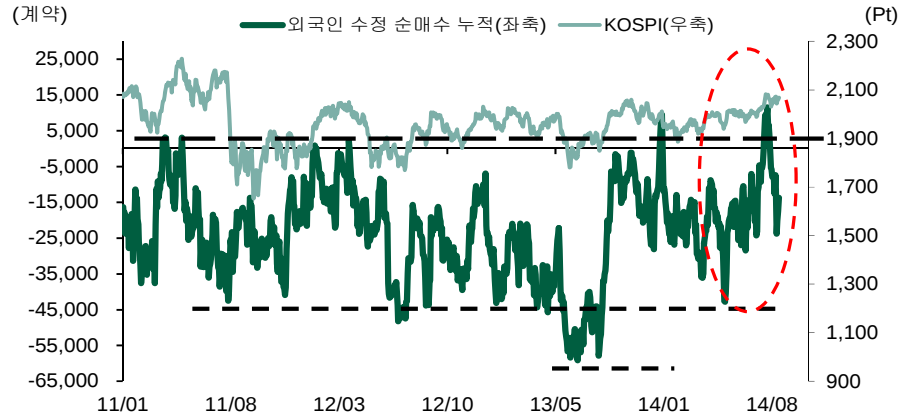
최근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매 빈번→ 이벤트성 단기 성향의 매매 패턴

- 최근 선물 외국인의 대규모 매매가 빈번히 관찰되는데 이는 정책 기대감과 금리 인하에 따른 이벤트성 단기 성향의 매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임. 또한, 국내 정책 기대감이 다소 소진된 시점에서 글로벌 변동성 이벤트 (1.FOMC 회의록 및 잭슨홀 등 연준 통화정책의 변경 가능성, 2. 이라크, 우크라이나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염두해 둔 단기 투기 세력의 진입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확대되었던 요인으로 판단됨.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추가 상승 유효

- 우리는 이번이 없었던 잭슨홀 미팅, ECB 드라기 총리의 경기 부양 의지와 확장적인 통화 정책 등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금융시장에 우호적이라고 판단됨(8/27 '우상향' 장세 지속, 글로벌 유동성 장세의 연장 참조). 최근 글로벌 통화 정책에 따른 외국인 매매 패턴을 고려한다면 국내증시의 선물 외국인 역시 환매수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세가 추가 상승을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판단됨.

그림 1> 우호적인 글로벌 유동성 환경은 선물 외국인의 환매수로 이어질 가능성 높은 상황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외국인 수경 순매수는 롤오버 물량을 감안한 수치

변동성 확대시 오히려 지수의 상승 추세는 강화

변동성 점검을 통해 지수의 추세 가속 가능성을 점검

- 최근 지수의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지수 전망에 낙관론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하에서 변동성 점검을 통해 지수의 추세 가속 가능성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

변동성 확대 1) 지수 하락, 2) 지수 상승속도 가속

- 변동성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두가지 상황 중 하나의 경우에 속함. 우리가 통상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 지수가 하락하는 경우와 2) 반대로 지수의 상승속도에 가속이 붙는 경우임. 지수의 상승폭 확대 즉, 상승 속도가 높아지며 변동성 역시 확대된 경우는 대세 상승기에 종종 발견되는 현상임.

변동성은 1) 지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역사적 변동성, 2) 옵션의 가격을 통해 추출하는 내재변동성

- 변동성은 지수 수익률의 표준편차를 이용한 역사적 변동성(Historical Volatility, H.V)과 옵션의 가격을 통해 추출하는 내재변동성(Implied Volatility, I.V)로 구분되며, 양자는 산출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궤적은 유사하기 때문에 시장추세의 판단 도구로서 큰 차이는 없다고 할 수 있음.

변동성은 장기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회귀 속성 →변동성의 현위치 및 변동성 전망 지수 전망과 유사한 효과

- 지수가 추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면, 변동성은 장기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회귀 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최근 변동성의 현재 위치 추적을 통한 변동성 전망은 지수 전망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됨. F-KOSPI200은 KOSPI200 지수를 선물화한 것인데, 변동성 지수인 VKOSPI와의 추세를 비교하는데 적합함. 변동성은 지수방향에 대한 반대지표로, VKOSPI 지수의 상승은 F-KOSPI200의 하락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임.

**변동성의 하향화가 시장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저변동성 양상→ 지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동성
확대가 지수 상승 유발**

-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동성 지수를 살펴보면, 변동성 지표들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변동성의 하향화가 시장 구조적으로 고착되고 있는 저변동성 양상을 보임. 최근 나타나고 있는 변동성의 특징은 지수 상승시 변동성이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임. 이는 코스피의 지속적인 박스권 횡보와 시장의 저변동성 환경하에서 단기 변동성 확대시(mean reverting) 지수와 역(-)의 상관관계가 아닌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며 변동성 확대가 지수 상승을 더욱 유발 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함.

**지수 박스권 돌파 이후
변동성은 저점을 높여가면서
변동성과 지수의 동반 상승이
중장기 나타날 것으로 전망**

- 중장기 변동성의 하향 안정화로 변동성 레벨 자체는 낮아질 것으로 보이나 변동성은 현재보다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추세와 같이 변동성 확대시 오히려 지수의 상승 추세는 강화 될 것으로 판단됨. 지수 박스권 돌파 이후 변동성은 저점을 점진적으로 높여가면서 변동성과 지수의 동반 상승이 중장기 추세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임.

**보조지표로 판단시에도 시장
변동성은 추가적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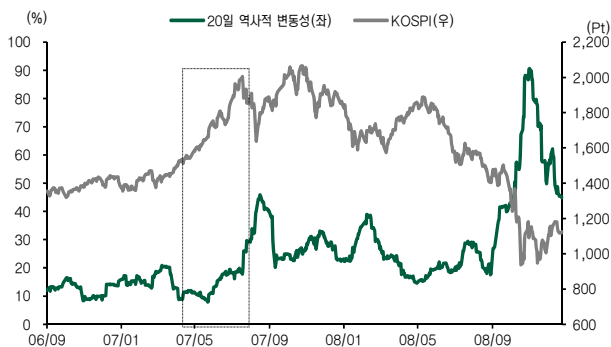
- 다른 보조지표를 통해 살펴보아도 시장 변동성은 더욱 추가적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림. 옵션 투자자는 대부분 역사적 변동성을 참조하기 때문에 옵션가격에서 추출한 내재변동성과 역사적 변동성은 추세가 대부분 일치함. 특히, 이 두가지 변동성의 고점은 대부분 일치하는 패턴을 보이는데 반해, 저점은 내재변동성이 상대적으로 고평가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임.

**최근 역사적변동성(Historical
Vol)과 내재변동성(Implied
Vol)의 괴리차는 저점까지
하락한 이후 반등**

- 이는 옵션가격의 고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인데, 이를 통해 변동성의 고점과 저점을 찾아내는 힌트가 될 수 있음. 즉, 역사적 변동성과 내재변동성의 괴리차가 마이너스 전환하면, 이는 변동성의 저점을 암시하는 시그널로 추정할 수 있음. 최근 역사적변동성(Historical Vol)과 내재변동성(Implied Vol)의 괴리차는 저점까지 하락하며 변동성 저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이후 변동성의 반등 추세가 나타나고 있어 추가적인 변동성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2> 2006~2007년 H.V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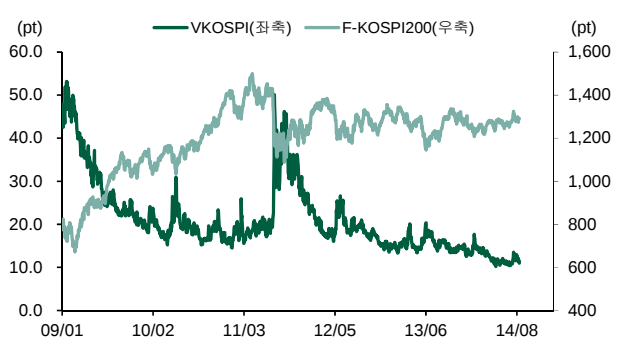
지수 진폭 강화와 변동성 동반 상승구간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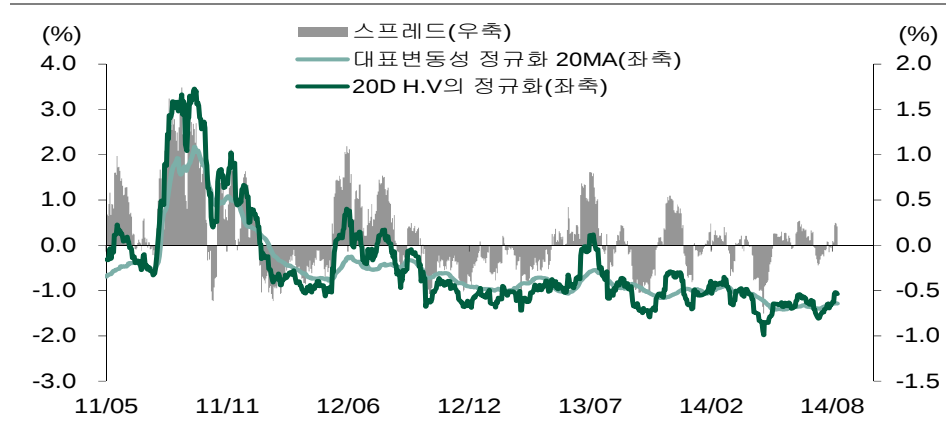
그림 3> 09년 이후 VKOSPI와 F-KOSPI200;

변동성은 장기 평균을 중심으로 평균회귀 속성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그림 4> I.V(내재변동성)와 H.V(역사적 변동성) 정규화와 스프레드 추이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변동성을 동반한 상승 → 점진적 우상향 상승 추세 연장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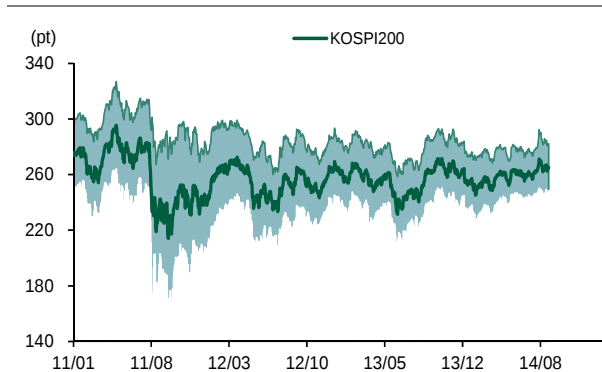
변동성만으로 판단시, 지수의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 변동성만 놓고 본다면, 지수의 추가 상승 가능성에 무게가 실림. 특히, 내재변동성과 같은 지표의 경우 옵션시장에 투영되어 있는 투자자들의 심리를 대변하는 지표라는 점에서 시장의 낙관론 확산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음.

상대강도 및 변동성을 활용한 예상 변동 지수대 역시 안정적인 상승을 뒷받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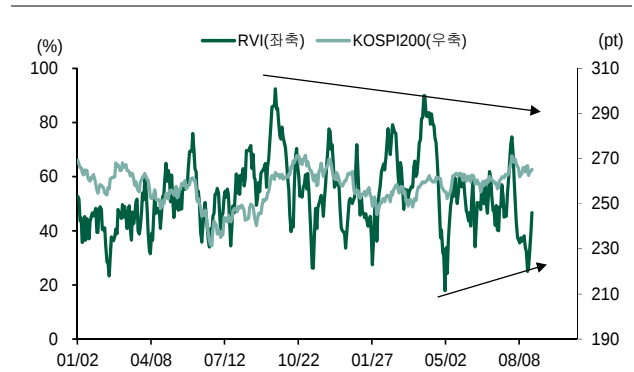
- 하향화된 변동성 레벨하에서 변동성의 저점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우상향의 박스패턴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상승추세 지속성이 기대됨. 최근의 상대강도 또한 평균 수준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변동성을 활용한 예상변동 지수대도 또한 확산보다 점진적 상승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단기적으로 변동성 저점에서 평균 수준으로 회귀 즉, 지수의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 숨고르기 수준의 조정만 예상해 볼 수 있음.

그림 5> VKOSPI를 활용한 KOSPI200 예상 변동범위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그림 6> KOSPI200과 상대강도지수(RVI) 추이



자료: 현대증권, 한국거래소

엘런, 그녀가 변하면 환율도 변한다

요약

- ✓ 8월 초에는 국내 기준금리 인하, 미국 GDP 성장률 호조 및 지정학적 위기가 겹치면서 1,041.30원까지 거래 되었다. 그러나 14일 금통위에서 금리 추가인하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없자 환율은 다시 하락하였고, FOMC의사록과 엘런의 잭슨홀 발언으로 1,010원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 ✓ 9월 외환시장에서 지켜봐야 할 이슈는 역시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이다. 지금까지 비둘기 파적인 입장을 유지해왔던 미 연준(Fed)이 고용지표 개선에 힘입어 중립적 입장으로 바뀌었다. 워낙 비둘기파였던 분위기 탓에 입장을 조금 수정하니 매파처럼 보일 뿐 아직 기준금리를 금방 인상할 것으로 보인진 않는다. 그럼에도 금리인상이 예상보다는 조금 앞당겨질 가능성은 높아졌다. 그에 따라 달러/원 환율이 상승할 수도 있다.
- ✓ 달러인덱스가 상승하였다. 미국 달러 자체가 강세가 되어 달러인덱스가 상승하였다기보다는 최근 주요 통화들이 스스로의 요인으로 미국 달러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는 탓이다. 유로는 경기회복이 더딘 행보를 보임에 따라 약해지고 있고, 엔 역시 경제가 기대보다 부진하여 점차 약해지고 있다. 달러인덱스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당장 기준금리를 인상할 준비가 된 것 같진 않다.
- ✓ 테이퍼링이 종료를 앞두고 있고, 미국 기준금리 조기인상 냄새가 솔솔 풍기는 가운데 외국인 순매수는 유지되고 있고, 전통적으로 하반기에 몰리는 경상수지 흑자의 특성상 달러/원의 향후 움직임이 갈 길을 고민하고 있다. 수급상으로는 환율이 점진적으로 하락되어야겠지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큰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시장이 알아서 옷깃을 여미는 형세이다. 9월에는 여전히 아래위가 막혀 1,010원대 후반에서 주로 거래될 것으로 보인다.

금리 인하에도 8월 달러/원 상승은 제한적

8월 초, 금리인하 기대감 속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되며 달러/원 추가 상승

8월 초 달러/원 환율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세가 이어졌다. 8월에 들어서자마자 1,030원대로 레벨을 높인 후 지난 8일에는 장 중 한 때 1,041원선을 넘어서기도 하였다. 이는 휴가철 돌입에 따른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물량 유입 둔화, 미국 2분기 GDP성장률 호조에 따른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오바마의 이라크 폭격 승인 등 지정학적 불안감이 추가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8월 금통위에서 25bp 금리인하 발표 후 달러/원 급락세

1,040원대 초반에서 고점 확인 후 달러 매수 심리는 다소 약화되었으나 금통위 경계심으로 하단 지지력이 유지되었던 달러/원 환율은 지난 14일 막상 금통위에서 25bp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하자 장 중 한 때 1,020.70원까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그 동안 금리인하 기대감이 환율에 선반영 되어있었고, 인하 폭이 시장 예상치에 부합한데다 향후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이 없었던 실망감 때문이었다. 금통위 이후 달러/원은 상승 재료가 소진됨에 따라 환율상승 기대로 쌓였던 매수물량이 손절매되면서 추가 하락세가 이어져 1,015.50원까지 낙폭을 확대하였다.

7월 FOMC의사록 공개, 엘런 연준 의장의 잭슨홀 연설 이후 글로벌 달러화 강세

달러/원이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자 당국의 개입 경계심이 강화되며 추가 하락이 제한되었다. 더불어 지난 20일에 공개된 7월 FOMC의사록에서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 기조를 보이면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가 본격화되어 달러/원도 재차 1,020원대로 상승 압력을 받았다. 이후 21일 엘런 연준(Fed)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기존의 비둘기파적 발언이 아닌 중립적 발언을 한 것 또한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로 이어졌다.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가 달러/원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

그러나 글로벌 달러화의 강세가 달러/원 환율의 상승 압력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하단 지지력을 강화시키는 정도에 그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서울환시 내부적으로 월말과 추석연휴를 앞두고 수출업체의 달러 매도물량 강도가 강해진데다 8월 기준금리 인하 후 추가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글로벌 달러화 강세가 신흥국 통화가 아닌 유로화와 엔화 등 주요 통화에 집중되고 있어 달러/원 환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

미국의 금리인상 시기 저울질할 9월 미국 경제지표에 주목해야

미 고용지표가 발표되는 추석 연휴 환율 변동성 확대 가능

계절이 변하며 우리 생체리들은 이제 곧 가을이 오리라 느낀다. 가을을 떠올리면 자연스레 추석을 생각하게 된다. 이번 추석연휴는 대체휴일이 시행되며 다른 해보다 조금 더 긴 연휴가 되었다. 늘 그랬듯이 연휴에는 외환시장의 변화가 많았다. 특히 3일을 연이어 쉬는 9월 둘째 주 연휴 역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연휴가 시작되는 9월 5일 금요일 저녁에는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된다. 미 연준(Fed)이 기준금리 인상과 연관 지어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표 이기에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주목대상이다. 서울 외환시장이 부재한 가운데 거래량이 적은 역외 시장에서 달러/원은 지표 결과에 따라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혹시나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참여자들은 리스크관리를 위해 연휴 전에 포지션 정리를 고려해보길 적극 권한다.

고용지표 호전으로 입장을 바꾸고 있는 Fed와 엘런

최근 1~2개월 사이 발표된 미국의 경제지표들은 대체적으로 예상보다 좋은 경우가 많았다. 그 중에서도 기준금리 인상의 바로미터가 되는 고용지표의 개선이 눈에 띈다. 그에 따라 Fed와 그 수장 엘런의 생각이 변하고 있다. 아직 미국의 경제가 활성화 되기에는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기에 기준금리 인상을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고용 상황과 물가를 고려해볼 때 미리 금리 인상 시간표를 작성해야 하는 Fed로서는 당연한 자세의 변화로 보인다. 달리 말하자면 비둘기파적(dovish) 입장에서 중립적 입장으로의 변화인데, 늘 비둘기파일 것 같았던 엘런이었기에 가운데 자리로의 이동이 웬지 매파적(hawkish)으로 바뀐 느낌을 주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제 기준금리 인상시기보다 금리인상 시간표 발표 때 환율 급변동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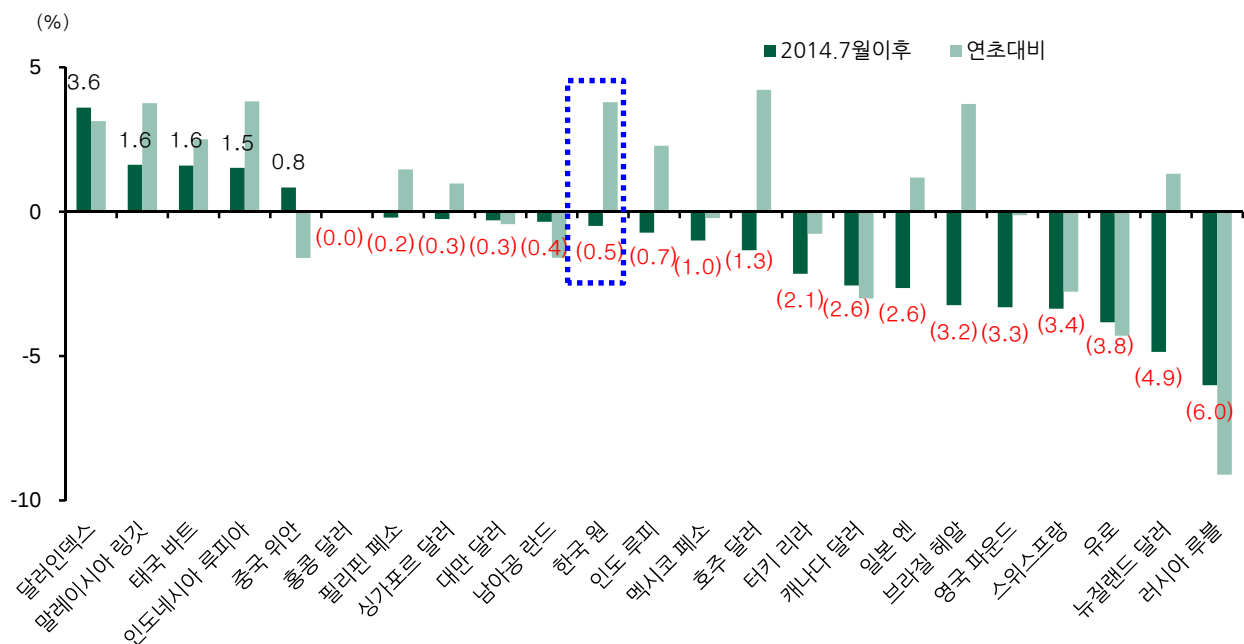
Fed가, 아니 FOMC가 어느 한 순간 갑작스레 ‘금리인상’을 발표하지는 않을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시장에 꾸준히 신호를 주고 준비를 시킬 것으로 보인다. 단지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느냐는 신호를 보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제이다. 환율은 미래에 다가올 이슈들이 시장에 줄 영향을 미리 반영하여 보여준다. 8월 국내 기준금리 인하가 7월 환율에 반영된 것이 단적인 예이다. 마찬가지로 미국의 출구전략으로 금리를 인상할 시간표가 발표되는 시점이 환율 상승의 피크가 될 것이다. 문제는 ‘그게 언제?’이다. 그 ‘언제’를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때가 바로 9월이다. 9월의 미국 경제지표들이 그 가능성을 말해줄 것이다. 그래서 9월을 중요한 시기로 볼 수 있다. 비록 환율은 아래위로 막혀 크게 변동할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달러인덱스는 급등하고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은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환율엔 복합적 영향

글로벌 달러 움직임의 또 다른 기준으로 달러인덱스와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들 수 있다. 달러인덱스는 27일 현재 82.7달러 수준으로 2013년 7월 수준으로 반등하였다. 그러나 달러인덱스의 상승은 달러 자체의 강세보다는 인덱스 구성의 가장 큰 비중인 유로와 엔의 약세 때문이다. 두 통화 모두 기대보다 더딘 경기회복과 부진한 지표들로 인해 거듭 약세를 면치 못하

고 있다. 그나마 지정학적 위험이 완화되면 엔의 추가 약세도 계속될 것이므로 달러인덱스는 당분간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달러인덱스가 오른다고 해서 글로벌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림 1>에서 보듯이 3분기 들어 달러가 주요 통화들에 대해서는 강세가 되었지만, 아시아 통화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강하지 않았다. 또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이 아직도 2.5% 이하에서 머물고 있어 시장은 금방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물론 기준금리 인상 시간표가 나오면 국채수익률 역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호 연관성을 고려해보면 아직은 그 때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주요 통화 가치 등락률 (2014.8.26 현재)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그림 2> 상승 중인 달러인덱스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그림 3> 여전히 낮은 미국 10년 만기 국채수익률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상하단이 막힌 가운데 크지 않은 변동성 보여줄 9월 달러/원

10월 테이퍼링 종료 후, 기준금리 인상 시기 저울질

금년 가을에는 눈여겨봐야 할 이슈들이 제법 있다. 지금 예상으로는 10월이면 미국의 테이퍼링이 끝난다. 더 이상 자금이 시장에 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경제가 큰 문제없이 확대되어 간다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0%대 기준금리의 인상이다. 1회에 걸쳐 끝나는 인상이 아닌 수 차례에 걸쳐 목표금리를 향해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3%까지 인상되어갈 것이다. 물론 미국의 금리인상은 올해가 아닌 내년엔 하겠지만 그 시간표에 관한 시그널은 올해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달러/원 환율은 어떻게 움직일까?

연말까지의 수급에 의한 변동이 예상되므로 완만한 하락 전망

일단 ‘미국 금리인상’이라는 잠재적 폭탄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이고 그 시기와 폭이 불확실하므로 당장은 시장의 수급이 환율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그런 의미에서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5일 전까지는 수출네고 등 공급이 많아 환율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줄리라 예상되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 후 다시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상수지 흑자가 하반기에 확대되는 과거의 경험과 지속되고 있는 외국인 순매수를 감안할 때 중기적으로 연말까지는 달러/원의 완만한 하향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순매수가 지속되는 한, 다른 요인으로 환율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라도 결국 수급상 하락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정학적 위험은 점차 완화될 듯

지난 달 초 환율을 1,040원 위로 잠시 끌어올렸던 지정학적 위험은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EU의 중재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상이 만나고, 이집트의 중재로 가자지구가 휴전상태로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라크 사태는 단기간 내에 종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그 위험도가 급격히 확대되거나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달러/원 거래범위 1,008~1,030원 예상

미국 금리인상 시기에 대한 우려와 당국 경계감으로 하단은 전저점인 1,008원대 부근에서 막힐 것으로 예상되고 상단은 경상수지 흑자, 수출네고 및 외국인 순매수 등으로 1,030원에서 저항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9월은 상하단이 막힌 상황하에서 미국 지표에 따라 오르내리는 시장이 되리라 전망된다. 9월 달러/원 예상 거래범위는 1,008~1,03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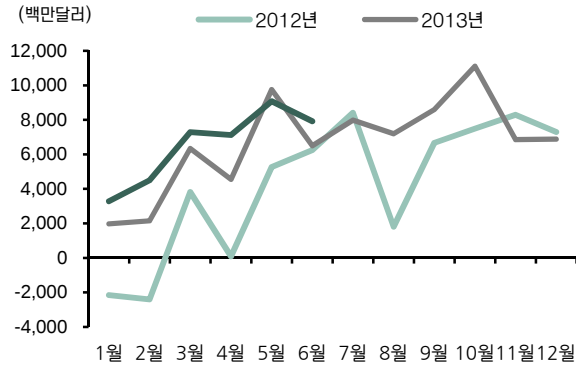
엔/원은 965~995원대 거래 예상

엔/원이 엔의 절하로 인해 6년 전 환율로 내려 앉았다.(그림 6> 참조) 엔/원 환율의 근래 저점 돌파로 대 일본 수출업체들은 비상이 걸렸겠지만,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고 시장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진 않다. 아베노믹스의 부진으로 엔화 약세가 진행되면서 달러/엔은 104엔선 근처까지 상승하였고, CME의 엔화 투기적 포지션 역시 다시 늘어남으로써 장기적으로 엔 가치의 절하 예상은 유지되고 있다.(그림 7> 참조) 9월 중 달러/엔이 103.50~104.50엔 사이에서 주로 거래 된다고 예상을 할 때 100엔당 엔/원의 주거래 범위는 965~995원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위안은 완만한 절상 이어질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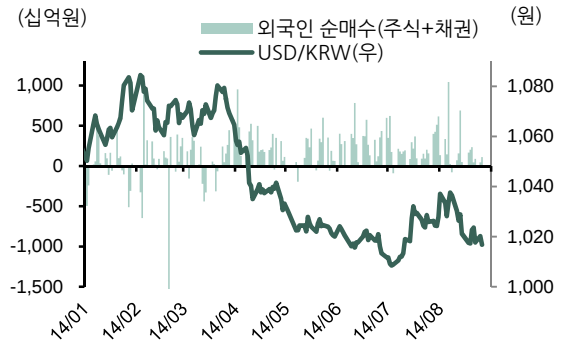
달러/위안은 약 5개월간의 방향을 끝내고 다시 고시 기준환율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 또한 위안화 환율 자체도 5월 이후 꾸준히 아래로 방향을 잡고 있다. 완만한 위안의 절상을 예상해볼 수 있겠다.

그림 4> 최근 3개년 연중 경상수지 흑자 흐름



자료: Bloomberg, 현대증권

그림 5> 외국인 순매수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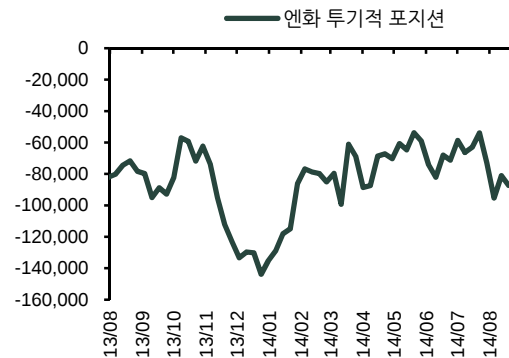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그림 6> 엔/원 환율 추이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그림 7> CME 엔화 투기적 포지션 현황



자료: Bloomberg, 현대증권

그림 8> 점차 하향하고 있는 달러/위안



자료: 연합인포맥스, 현대증권

경제지표 및 주요 이벤트 일정 (한국시간 기준)

8월					결과	예상	이전	9월					이전
1일	한국	7월	무역수지		\$2.52B	\$3.09B	\$5.45B	1일	한국	8월	무역수지		\$2.52B
	중국	7월	HSBC 제조업 PMI		51.7	52.0	50.7		중국	8월	HSBC 제조업 PMI		51.7
	유로존	7월	제조업 PMI		51.8	51.9	51.9	2일	미국	8월	ISM 제조업 PMI		57.1
	미국	7월	실업률		6.2%	6.1%	6.1%	3일	미국	7월	공장재수주 (전월대비)		1.1%
	미국	7월	비농업부문 고용자수		209K	230K	288K	4일	유로존	9월	ECB 정책금리		
	미국	7월	ISM 제조업 PMI		57.1	56.1	55.3	5일	미국	8월	실업률		6.2%
5일	한국	7월	외환보유고		\$368.03B		\$366.55B	11일	미국	8월	재정수지		-\$94593M
	유로존	6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4%	0.4%	0.3%	12일	한국	9월	한국은행 금통위		
	미국	6월	공장재수주 (전월대비)		1.1%	0.6%	-0.6%		미국	9월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79.2
8일	일본	6월	경상수지		-¥399.1B	-¥325.6B	¥522.8B		유로존	7월	산업생산		100.49
	한국	7월	거주자외화예금		\$62.5B		\$58.95B	15일	미국	8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4%
13일	일본	2Q	GDP (전분기대비)		-1.7%	-1.7%	1.6%	16일	미국	8월	PPI (전월대비)		0.1%
	중국	7월	산업생산 (전년대비)		9.0%	9.1%	9.2%	17일	미국	8월	CPI (전월대비)		0.1%
	유로존	6월	산업생산 (전월대비)		-0.3%	0.3%	-1.1%	18일	미국	9월	FOMC 정례회의		
	미국	7월	소매판매 (전월대비)		0.0%	0.2%	0.2%		미국	8월	신규주택착공건수		1093K
14일	유로존	2Q	GDP (전분기대비)		0.0%	0.1%	0.2%	19일	미국	8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9%
	미국	8월	뉴욕주 제조업지수		14.7	20.3	25.6	22일	미국	8월	기준주택판매		5150K
21일	중국	8월	HSBC 제조업 PMI		50.3	51.5	51.7	25일	미국	8월	신규주택판매		412K
	미국	7월	경기선행지수 (전월대비)		0.9%	0.6%	0.6%		미국	8월	내구재수주 (전월대비)		22.6%
26일	미국	7월	내구재수주 (전월대비)		22.6%	7.4%	1.7%	26일	한국	8월	경상수지		
28일	한국	7월	경상수지				\$7.92B		미국	8월	개인소비지출		
	미국	2Q	GDP (전분기대비)			4.0%	-2.1%	30일	미국	9월	시카고PMI지수		

B=십억, M=백만, K=천

자료: Infomax, 현대증권

Major Currencies

	7/29 증가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USD/JPY	102.12	0.68	-0.51	-0.09	4.26
EUR/USD	1.3408	-1.77	-2.92	-1.81	1.10
EUR/JPY	136.93	-1.08	-3.41	-1.90	5.40
GBP/USD	1.6943	-0.55	0.69	2.35	10.44
USD/CHF	0.907	1.83	2.66	1.31	-2.61
USD/CAD	1.0853	1.76	-0.83	-2.90	5.73
AUD/USD	0.9384	-0.44	1.25	7.44	1.92
NZD/USD	0.8505	-3.10	-0.51	3.73	5.86
USD/CNY	6.1805	-0.61	-1.24	2.06	0.71
Dollar Index	81.22	1.50	1.77	0.79	-0.59

재정 환율

	7/29 증가	1개월 (%)	12개월 (%)
JPY/KRW	1003.08	0.39	-11.53
CNY/KRW	165.74	1.70	-8.41
EUR/KRW	1373.52	-0.71	-6.76
CAD/KRW	943.84	-0.65	-12.75
BRL/KRW	458.98	-0.61	-6.22

신용 지표

	(bp)	전월대비
CDS 프리미엄 (5Y)	51	-4.4
외평채 가산금리	40	2

주: 외평채는 2023년 9월물

Asia & Emerging Currencies

	7/29 증가	1개월 (%)	3개월 (%)	6개월 (%)	12개월 (%)
USD/KRW	1024.40	1.09	-0.60	-4.30	-7.76
USD/TWD	30.000	0.55	-0.68	-1.03	0.26
USD/INR	60.14	0.20	-0.48	-3.68	1.46
USD/SGD	1.2428	-0.56	-1.05	-2.66	-1.92
USD/IDR	11580	-3.46	0.23	-4.81	12.76
USD/PHP	43.38	-0.89	-2.54	-4.09	0.35
USD/MYR	3.1749	-1.21	-2.59	-4.89	-1.60
USD/BRL	2.2267	0.90	-0.43	-8.56	-1.80
USD/MXN	13.0669	0.81	-0.27	-2.36	2.43
USD/RUB	35.83	6.14	0.41	2.02	9.04
USD/ZAR	10.6029	0.14	0.43	-5.86	8.24

자료: Infomax, 현대증권

FX Swap Points(USD/KRW)

	Bid	Mid	Ask
1M	55	155	255
3M	135	435	735
6M	260	760	1260
12M	320	1220	2120

외국인 매매 동향

(억원)	6월 누적	14년 누적	13년 누적
KOSPI	10,931	51,885	31,943
KOSDAQ	-358	7,726	17,929
국고채	26,741	59,753	93,523
통안채	26,964	113,228	281,994

투자정보팀

현대 able 안정성장형 포트폴리오

◇ Investment Summary

종목선정기준: 대형주 중심으로 실적, 밸류에이션 등 중장기 모멘텀을 고려한 종목 선정

추천기간: 2개월 원칙이나 시장 상황에 연동해 조절

목표수익/로스컷: +15%/-10% 원칙으로 하되 리스크 관리에 따라 탄력적 대응

벤치마크: KOSPI 100%

◇ 신규종목 편입 및 제외

신규종목: 없음

제외종목: 없음

◇ 수익률 추이

	주식비중	현금비중
	90%	10%
	KOSPI	
전일대비	0.33%	1.04%
누적수익률	3.16%	10.67%
BM대비	+7.51% 포인트	

SK (003600) 추천일 8월 25일 수익률 - 0.60%	- 자회사 관련 일회성 손실 소멸과 SK텔레콤 중심의 이익 개선 가시화에 따른 모멘텀 강화 전망 - 에너지관련 자회사들의 악재 선반영과 실적 바닥 통과 한것으로 판단, 배당 및 주주가치 증대 효과로 하반기 턴어라운드 기대	단위 (원) 추천가: 165,500 전일종가: 164,500 + 500
KCC (002380) 추천일 8월 19일 수익률 + 7.78%	- 2분기 건자재부문 영업이익 전분기 대비 46% 급증하며 이익모멘텀 증명, 원자재가격 하락에 따른 이익의 질적 개선도 긍정적 - 하반기 건자재 부문 양호한 실적 전망 예상과 자동차, 조선등의 전방산업 업황 개선시 추가적인 이익 개선 전망	단위 (원) 추천가: 643,000 전일종가: 693,000 + 5,000
빙그레 (005180) 추천일 8월 19일 수익률 + 7.46%	-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2분기 실적 기록, 양호한 외형성장과 가격인상효과에 따른 실적 성장 견인 - 수익성 좋은 아이스크림 매출 증가에 따른 3분기 실적 개선도 이어질 전망, 내수실적 회복으로 수익성 추가 개선 기대	단위 (원) 추천가: 84,500 전일종가: 90,800 + 5,100
한전KPS (051600) 추천일 8월 13일 수익률 + 0.26%	- 발전설비용량 증가와 정비물량 증가로 장기 성장이 가능하고 해외성장 잠재력도 높은 상황이며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이익증가 예상 - 최근 정부의 배당강화 정책으로 배당성향이 과거 최고치인 70%까지 상향될 수 있음	단위 (원) 추천가: 78,300 전일종가: 78,500 - 600
KT (030200) 추천일 8월 11일 수익률 + 0.72%	- 최근 급감하고 있는 설비투자과 대규모 명퇴 등을 고려할 때 이동전화 매출, 감가상각비, 인건비 등에서 개선효과를 통한 실적 개선 기대 - 부동산, 구리선 가치를 고려한 실질 자산 가치대비 현 주가는 현저히 저평가 상태	단위 (원) 추천가: 34,500 전일종가: 34,750 + 100

CJ (001040) 추천일 8월 7일 수익률 + 13.88%	- CJ대한통운, CJ오쇼핑, CJ CGV, CJ E&M 등 자회사에 대한 의존도 분산과 자회사들의 고른 실적 개선 기대감 지속 부각 - 비상장 자회사 CJ올리브영, CJ푸드빌의 매출 및 영업이익 증가에 따른 수익성 개선도 주목	단위 (원) 추천가: 158,500 전일종가: 180,500 - 6,000
삼성증권 (016360) 추천일 8월 1일 수익률 + 2.45%	- 환율하락에 따른 내수주와 금융주에 대한 관심이 증대, 금리하락 예상으로 업종펀더멘털 개선 주목 - 지점 축소 및 인력 조정으로 연간 700억 비용 절감 기대 및 NCR 상향에 따른 자본 운용 확대 전망	단위 (원) 추천가: 49,000 전일종가: 50,200 + 2,850
강원랜드 (035250) 추천일 8월 1일 수익률 + 5.25%	- 불법 사행시장 단속에 따른 내국인 카지노 수요 증가 및 공기업 배당확대 방침에 따른 기업가치 제고 기대 - 2분기 실적도 동 업종 경쟁사 대비 양호할 전망, 하반기 실적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유효	단위 (원) 추천가: 34,300 전일종가: 36,100 - 200
KB금융 (105560) 추천일 7월 10일 수익률 + 17.15%	- 2분기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4,000억 수준으로 회복 전망되고 대출이 2% 정도 증가 예상 - NIM의 소폭 상승이 긍정적이며 M&A를 통한 시너지 효과 하반기 이후 나타날 것으로 전망	단위 (원) 추천가: 35,850 전일종가: 42,000 + 900
삼성전자 (005930) 추천일 2월 25일 수익률 - 7.38%	- 태블릿PC의 경우 전년 대비 큰 폭의 출하 성장 및 스마트폰도 전체적으로 안정적 성장이 지속될 전망 - 메모리 사업부의 실적회조 지속과 함께 배당성향 증가, 자사주 매입 가능성 등 주주친화정책 긍정적	단위 (원) 추천가: 1,328,000 전일종가: 1,230,000 + 8,000

투자정보팀

현대 able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 Investment Summary

종목선정기준: KOSDAQ 및 소형주 중심의 성장성, 모멘텀 등을 바탕으로 한 종목 선정

추천기간: 1개월 원칙이나 시장 상황에 연동해 조절

목표수익/로스컷: +15%/-10% 원칙으로 하되 리스크 관리에 따라 탄력적 대응

벤치마크: KOSDAQ 100%

◇ 신규종목 편입 및 제외

신규종목: 없음

제외종목: 없음

◇ 수익률 추이

주식비중	현금비중
70%	30%

	KOSDAQ	액티브형
전일대비	-0.18%	-1.19%
누적수익률	13.45%	34.49%
BM대비	+21.05% 포인트	

일진홀딩스 (015860) 추천일 8월 26일 수익률 + 0.31%	- 원화강세로 2분기 매출액은 예상치 대비 소폭 밀렸지만 연결 영업이익은 기대치에 부합, 특히 계열사 알피니온의 성장이 돋보임 - 4분기에도 알피니온이 일진홀딩스의 수익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4분기에는 분기 최대 영업이익 달성 전망	단위 (원) 추천가: 6,540 전일종가: 6,560 - 190
삼보모터스 (053700) 추천일 8월 20일 수익률 + 25.00%	- 프라코 체코 법인의 정상화를 통해 외형 성장 및 수익성 개선, 금형기술과 플라스틱 사출기술 보유로 안정적 수익구조 보유 - 현재 프라코 체코 법인은 전체 물량의 70%가 현대차그룹용이지만 유럽업체용 업체들 록되어 있어 향후 매출처 다각화로 추가성장 기대	단위 (원) 추천가: 9,000 전일종가: 11,250 - 450
동성홀딩스 (102260) 추천일 8월 19일 수익률 + 1.10%	- 주력 자회사인 동성화인텍, 동성화학, 동성하이켐 등의 꾸준한 실적개선을 통해 상반기 실적에 지난해 대비 큰 폭 증가 - 비상장 자회사인 친환경 폐타이어 재생처리 업체인 동성에코어 및 바이오전문기업인 제네웰 등의 가치도 부각 기대	단위 (원) 추천가: 7,260 전일종가: 7,340 + 10
CJ E&M (130960) 추천일 8월 8일 수익률 + 2.05%	- 영화 '명량'의 흥행몰이에 투자배급사인 동사의 실적회전 예상 등 2분기 부진을 딛고 하반기 개선 전망 - 주력게임인 '모두의 마블'이 중국에 본격 출시됨에 따라 하반기 큰 폭의 실적 개선 전망 및 방송, 영화 등의 가치 저평가 상태	단위 (원) 추천가: 46,400 전일종가: 47,350 - 250
에스피지 (058610) 추천일 7월 21일 수익률 + 7.16%	- 동사의 BLDC모터가 에어컨 실내외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에어컨 등으로 사용범위가 확대되면서 매출 성장에 기여 - 거래처 또한 중국 하이얼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동력용 모터의 급성장 전망 등 올해 사상 최대 실적 기대	단위 (원) 추천가: 6,700 전일종가: 7,180 + 150
아바텍 (149950) 추천일 6월 11일 수익률 + 15.04%	-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1분기 실적은 선방했으며 2분기부터 IT기기 신제품 출시 등 고부가가치 패널 출하량 증가로 수혜 예상 - 2분기 후반부터 애플의 본격적인 신제품 관련 패널 양산 기대 등 동사의 슬리밍, ITO 코팅부문 실적이 큰 폭 증가 전망	단위 (원) 추천가: 12,300 전일종가: 14,150 - 300
하림홀딩스 (024660) 추천일 4월 14일 수익률 + 19.00%	- 홈쇼핑, 음식료, 사료, 농축산업, 농축산금융으로 구성된 성장가능성이 높은 자회사 포트폴리오 구성이 매력적 -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해외진출 성과가 기대되며 약 40.7%를 가지고 있는 NS홈쇼핑의 가치 부각 기대	단위 (원) 추천가: 5,210 전일종가: 6,200 - 320

Compliance Notice

- 안정성장형,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종목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안정성장형,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종목은 편입일 기준 당사 투자컨설팅센터 연구원이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안정성장형,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종목은 당사와 계열사 관계가 없습니다.
- 안정성장형,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종목에 게재된 내용들은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습니다.
- 안정성장형, 액티브형 포트폴리오 종목 자료의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투자 의견과 일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당사는 SK, KCC, KT, 삼성증권, KB금융, 삼성전자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ELW를 발행한 사실이 있습니다.

투자정보팀 김철영 02-6114-1664 cy.kim@hdsr.com

이수페타시스, 대우증권, 에스텍

■ 차트 관심 종목 : 이수페타시스(007660)



[단기 5일 선이 중기 20일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종목]

관련 종목군

K O S P I	한국콜마홀딩스(024720)	백산(035150)
	CJ CGV(079160)	일진홀딩스(015860)
	에넥스(011090)	AK홀딩스(006840)
	GS리테일(007070)	제일기획(030000)
K O S D A Q	삼영엠텍(054540)	한스바이오(042520)
	루트로닉(085370)	프로텍(053610)
	소프트맥스(052190)	선데이토즈(123420)
	코디에스(080530)	르네코(042940)

■ 신고가 종목 : 대우증권(006800)



[52주 신고가 및 신고가 유지되는 종목]

관련 종목군

K O S P I	LG(003550)	신세계푸드(031440)
	CJ(001040)	동성제약(002210)
	인팩(123810)	한국화장품(123690)
	기업은행(024110)	한국금융지주(071050)
K O S D A Q	로엔(016170)	삼보모터스(053700)
	나이스정보통신(036800)	ISC(095340)
	나스미디어(089600)	KT뮤직(043610)
	우진비앤지(018620)	바이로메드(084990)

■ 박스권 돌파 종목 : 에스텍(069510)



[이동평균선이 박스권을 형성하고, 현재가가 박스권을 돌파한 종목]

관련 종목군

K O S P I	LG생활건강(051900)	신송홀딩스(006880)
	동아지질(028100)	한솔케미칼(014680)
	AJ렌트카(068400)	사조해표(079660)
	교보증권(030610)	코리아써킷(007810)
K O S D A Q	엠게임(058630)	참좋은레저(094850)
	파라다이스(034230)	원익QnC(074600)
	플렉스컴(065270)	창해에탄올(004650)
	제일테크노스(038010)	톱텍(108230)

■ 외국인 보유 비율 증가 종목

K O S P I	현대차(005380)	POSCO(005490)
	SK하이닉스(000660)	현대제철(004020)
	LG유플러스(032640)	SK이노베이션(096770)
	삼성전자(005930)	LG디스플레이(034220)
K O S D A Q	뷰웍스(100120)	성우하이텍(015750)
	인터파크INT(108790)	로엔(016170)
	메디톡스(086900)	게임빌(063080)
	크레듀(067280)	루멘스(038060)

■ 기관 보유 비율 증가 종목

K O S P I	SK하이닉스(000660)	LG(003550)
	기아차(000270)	신세계푸드(031440)
	LG유플러스(032640)	우리금융(053000)
	신한지주(055550)	SK텔레콤(017670)
K O S D A Q	테라세미콘(123100)	셀바이오텍(049960)
	CJ E&M(130960)	리훅쿠첸(014470)
	한국토지신탁(034830)	CJ오쇼핑(035760)
	게임빌(063080)	산성앨엔에스(016100)

참 고 : 상가종목은 당사 추천종목과는 별개이며, 음영 종목은 신규 관심 종목입니다. 밑줄 종목은 외국인 및 기관 공통 순매수 종목입니다.

본 자료는 과거의 자료를 기초로 한 투자참고 자료로서 향후 주가 움직임은 과거의 패턴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에스에프에이 (056190)

BUY (유지)

디스플레이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hdsr.com

RA 임민규
02-6114-2953 minkyu.lim@hdsr.com

주가(8/27)	44,000원
목표주가	67,000원

하반기 실적급증 전망

- 하반기 영업이익 513억원, 상반기대비 7배 증가
- 강력한 실적모멘텀 기대, 추가 상승여력 클 전망

그림 1> 2분기 영업이익 45억원, 예상부합

(십억원)	2Q14P	증감률 (%)		2Q13	1Q14
		YoY	QoQ		
매출액	69.5	(53)	21	149.4	57.4
영업이익	4.5	(78)	61	20.7	2.8
세전이익	8.9	(64)	77	24.4	5.0
당기순이익	6.9	(60)	46	17.1	4.7
영업이익률 (%)	6.4			13.9	4.8
당기순이익률 (%)	9.9			11.5	8.3

자료: 에스에프에이, 현대증권

그림 2> 하반기 영업이익 513억원, 전년대비 101% 증가

(십억원)	3Q14F	증감률 (%)		4Q14F	증감률 (%)	
		YoY	QoQ		YoY	QoQ
매출액	143.8	22	107	191.7	101	33
영업이익	20.8	13	366	30.5	331	46
세전이익	25.7	9	190	35.8	261	39
당기순이익	20.8	13	201	29.0	182	39
영업이익률 (%)	14.5			15.9		
당기순이익률 (%)	14.5			15.1		

자료: 에스에프에이, 현대증권

하반기 영업이익 513억원, 상반기대비 7배 증가

2분기 에스에프에이 매출과 영업이익은 695억원, 45억원을 기록해 당사 예상에 부합하였다. 또한 2분기 영업이익률도 6.4%로 전분기대비 (4.8%) 개선 추세를 나타냈다. 특히 동사는 ① 중국 패널업체로부터 신규수주 증가, ② 삼성디스플레이 LCD, OLED 신규투자 확대 등으로 하반기부터 큰 폭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따라서 올 하반기 매출과 영업이익은 상반기대비 각각 164%, 608% 증가 (전년대비 57%, 101% 증가)한 3,355억원, 513억원으로 예상되며 하반기에만 '14년 연간 영업이익 (586억원)의 88%를 달성할 전망이다.

강력한 실적모멘텀 기대, 추가 상승여력 클 전망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는 2014년 연간 설비투자의 74%인 6.4조원을 올 하반기부터 집행하고 BOE, CSOT, Visionox, Truly, Tianma, Tianyi 등 중국 패널업체들도 '14년 4분기부터 10여개의 대규모 설비투자를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따라서 전, 후공정 핵심장비의 라인업을 확보하고 있는 동사는 하반기부터 한국과 중국에서 LCD, OLED 물류장비 뿐 아니라 OLED 증착장비까지 수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 인해 3분기, 4분기 영업이익은 전분기대비 각각 366%, 46% 증가 (전년대비 13%, 331% 증가)한 208억원, 305억원으로 추정되어 '13년 4분기~'14년 2분기까지 9개월간 지속된 분기 영업이익의 전년대비 감소세는 '14년 3분기부터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동사 주가는 ① 강력한 실적 모멘텀, ② M&A에 따른 신성장동력 확보, ③ 340억원 규모 (77만주, 4.3%)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향후 추가 상승여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목표주가 67,000원과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한다.



엘엠에스 (073110)

BUY (유지)

디스플레이 Analyst 김동원
02-6114-2913 jeff.kim@hdsr.com

RA 임민규
02-6114-2953 minkyu.lim@hdsr.com

주가(8/27)	19,000원
목표주가	34,000원

하반기 큰 폭의 실적개선 기대

- 해외 고객기반 확대로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
- 퀀텀닷 (QD) 시장확대 최대 수혜

그림 1> 2분기 영업이익 47억원, 양호한 실적 달성

(십억원)	2Q14P	증감률 (%)		2Q13	1Q14
		YoY	QoQ		
매출액	33.5	27	2	26.3	32.7
영업이익	4.7	34	(6)	3.5	5.0
세전이익	0.1	(98)	(99)	3.1	5.2
당기순이익	0.1	(98)	(99)	3.4	5.2
영업이익률 (%)	14.0			13.3	19.0
당기순이익률 (%)	0.2			12.9	19.7

자료: 엘엠에스, 현대증권

해외 고객기반 확대로 하반기 최대 실적 전망

2분기 엘엠에스 매출과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각각 27%, 34% 증가한 335억원, 47억원을 기록해 여타 부품업체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하였다. 특히 동사는 하반기부터 해외 고객기반 확대를 위한 큰 폭의 실적개선이 기대된다. 이는 3M대비 가격경쟁력을 확보한 동사의 프리즘시트가 해외수출이 확대되며 올 하반기부터 해외 매출비중 (70%: 중국 50%, 일본 20%)이 한국 비중 (30%)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올 하반기 영업이익은 145억원 (영업이익률: 15.8%)으로 상반기 대비 50% 증가 (전년대비 4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14년 연간 영업이익 (242억원)의 60%를 하반기에 달성할 전망이다.

그림 2> 하반기 영업이익 145억원, 전년대비 40% 증가

(십억원)	3Q14F	증감률 (%)		4Q14F	증감률 (%)	
		YoY	QoQ		YoY	QoQ
매출액	40.6	23	21	51.2	61	26
영업이익	6.5	24	39	8.0	56	24
세전이익	6.8	193	11,907	8.4	67	24
당기순이익	6.5	149	12,195	8.0	60	24
영업이익률 (%)	16.0			15.7		
당기순이익률 (%)	15.9			15.7		

자료: 엘엠에스, 현대증권

퀀텀닷 (QD) 시장확대 최대 수혜

2015년부터 퀀텀닷 (QD) 기술은 필름방식 (QD film)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PC 및 TV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 초부터 삼성, LG, 애플, 소니, 중국 업체들이 색재현성을 강화한 퀀텀닷 (QD) TV, 모니터, 태블릿 PC 등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되어 시장규모는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따라서 퀀텀닷 (QD) 보급률은 2015년 1.3%에서 2017년 10.8%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4년 하반기 현재 퀀텀닷 필름 (QD film) 상용화 가능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엘엠에스와 3M이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어 동사는 향후 퀀텀닷 시장확대 최대 수혜가 기대된다. 목표주가 34,000원과 투자 의견 BUY를 유지한다.

KOSPI200 선물 · 옵션지표

KOSPI200 Futures

구 분	KOSPI200	1409월물	1412월물	1503월물	9~12 스프레드
전 일 종 가 (pt)	265.88	266.35	267.95	266.80	1.50
전 일 대 비	0.74	0.25	0.35	-0.15	0.05
등 락 률 (%)	0.28	0.09	0.13	-0.06	3.45
시 가	266.12	267.00	268.50	268.25	1.45
고 가 (pt)	267.04	268.00	269.40	268.25	1.50
저 가	265.42	266.20	267.70	266.80	1.45
거 래 량	72,785	131,670	912	5	396
미결제약정 (계약)		119,335	7,764	750	-
증 감		733	497	0	-
이 론 가 (pt)		266.16	267.75	266.78	1.59
기 준 가		266.10	267.60	266.95	1.45
잔 존 일 수 (일)		15	106	197	15
배당액지수 (pt)		0.00	0.00	2.56	0.00
이론베이스스 (pt)		0.28	1.87	0.90	1.59
평균베이스스 (pt)		0.92			

▶ KOSPI200의 배당액 지수는 CD금리 적용

▶ 평균베이스스는 (당일누적 선물의 평균단가) - (당일누적 KOSPI200의 평균지수)로 계산된 수치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외국인	개인	금융투자(증권)	보험	투신	연기금등
순매수(계약)	4,267	-2,602	-80	343	-1,452	-149
매 수	67,615	37,506	23,938	389	1,917	122
매 도	63,348	40,108	24,018	46	3,369	271
매매비중(%)	49.40	29.30	18.10	0.20	2.00	0.20
5일간 누적	1,897	-3,684	814	269	1,500	24
누적순매수	-4,077	7,615	-6,838	-1,176	5,978	-551
수정순매수	-9,432	5,743	-7,987	2,765	8,631	991

▶ 누적순매수는 직전 선물옵션 동시만기 이후부터 직전일까지 순매수의 누적 수치

▶ 수정순매수는 직전 선물옵션 동시만기일의 스프레드 거래를 통한 롤오버 물량까지 감안한 누적 수치

프로그램 매매동향

		금액(억원)	당일비중(%)			차익잔고(억원)
차 익 거 래	순매수	145	0.42	08/27	매도차익	101,619
	매수	254	0.29		매수차익	64,922
	매도	110	0.13			65,009
	매도	110	0.13			64,910
비차익거래	순매수	2,191	18.51	08/25		101,359
	매수	9,089	10.52	08/22		64,871
	매수	9,089	10.52	08/21		100,952
	매도	6,898	7.99	08/20		64,844
						100,975
						64,752
						101,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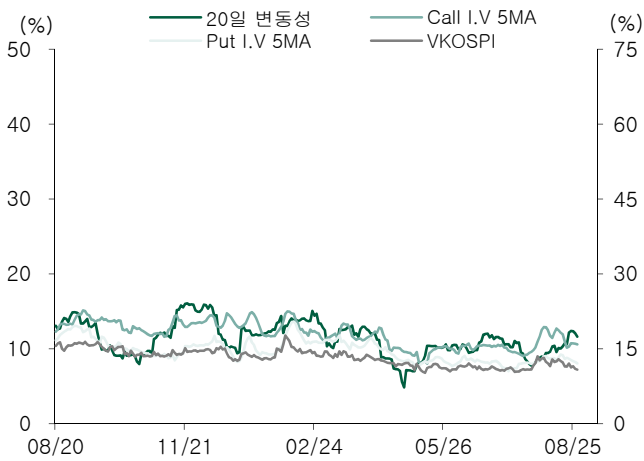
▶ 당일 매도 및 매수차익 잔고는 장중 매수 및 매도 차익거래 비중을 감안하여 산출한 추정치

KOSPI200 변동성 및 옵션 최근월물 만기까지의 변동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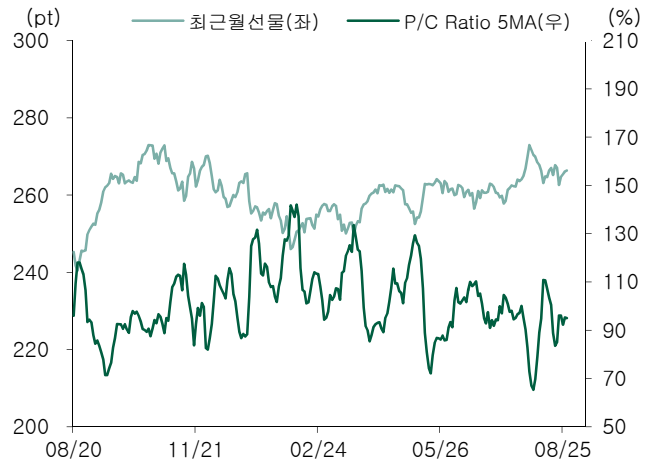
	변동성	KOSPI200 1σ 변동범위	KOSPI200 2σ 변동범위
대표 내재변동성	0.104	258.44 ~ 273.32	251.00 ~ 280.76
콜/풋 평균 내재변동성	0.097 0.111	257.95 ~ 272.83	250.03 ~ 279.78
역사적 변동성(20일)	0.116	257.59 ~ 274.17	249.30 ~ 282.46

▶ 만기일까지의 잔존기간을 기준으로 1σ 변동범위에서 지수 변동이 일어날 확률은 68.3%, 2σ 변동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확률은 95.4%로 해석

KOSPI200 옵션 변동성 추이



Put/Call Ratio (거래대금 기준)



KOSPI200 옵션 투자자별 포지션

■ 옵션 당일 포지션과 매매평균가

	콜(매수)		콜(매도)		풋(매수)		풋(매도)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수량	단가
금융투자(증 권)	220	2.03	224	2.03	211	1.75	217	1.60
투 신		7.27		5.46		7.67		
외 국 인	362	4.98	362	4.99	400	4.42	395	4.49
개 인	273	4.59	270	4.58	256	3.85	255	3.93

(단위: 천계약, 억원)

■ 당일 및 누적포지션

	콜(당일)		콜(누적)		풋(당일)		풋(누적)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금융투자(증 권)	-3,949	-8.81	-25	68.17	-6,172	20.97	-21	80.24
투 신	-64	-0.29	-1	-3.16	30	0.23	0	0.19
외 국 인	386	-3.77	8	37.82	5,144	-4.64	29	53.0
개 인	3,423	16.04	21	-95.65	775	-15.49	-3	-94.91

(단위: 천계약, 억원)

▶ 누적포지션은 옵션만기일 이후부터 누적된 포지션임. 옵션 수량, 금액의 경우 매수는 (+), 매도는 (-)의 부호로 구분하여 계산하였음.

▶ 누적포지션 단위는 천 계약임.

투자정보팀

증시지표 및 주변자금 동향

유가증권 시장 주요지표

		13년말	8/20(수)	8/21(목)	8/22(금)	8/25(월)	8/26(화)	8/27(수)
주가지표	KOSPI	2,011.34	2,072.78	2,044.21	2,056.70	2,060.89	2,068.05	2,074.93
	등락폭	9.06	1.64	-28.57	12.49	4.19	7.16	6.88
	시가총액(억원)	11,859,734	12,407,392	12,237,310	12,315,302	12,328,385	12,370,963	12,413,113
	KRX100	4,358.00	4,396.50	4,325.61	4,353.81	4,360.80	4,374.84	4,385.95
이동평균	20일	1,988.33	2,056.39	2,057.19	2,058.69	2,060.05	2,061.01	2,061.66
	60일	2,010.00	2,020.22	2,020.79	2,021.77	2,022.50	2,023.43	2,024.76
	120일	1,965.25	1,998.38	1,999.00	1,999.65	2,000.32	2,001.18	2,002.19
거래량지표	거래량(천주)	172,231	311,042	300,227	274,117	268,890	284,881	333,998
	5일	209,644	298,019	302,795	304,962	299,404	291,587	296,121
	20일	230,174	321,521	319,073	316,977	316,470	313,421	309,884
	거래대금(억원)	32,615	43,897	44,770	34,553	34,427	36,206	43,163
발행주식수	(천주)	35,217,293	35,452,823	35,453,945	35,453,945	35,463,842	35,465,523	35,472,277
이격도	(%,20일)	101	101	99	100	100	100	101
투자심리선	(10일)	80	60	60	70	80	80	80
VR	(%,20일)	81	114	116	141	140	138	135
ADR	(%,20일)	84	95	93	97	96	100	104
상승종목	(상한)	494(5)	355(5)	320(2)	466(3)	424(7)	499(5)	434(2)
하락종목	(하한)	311(3)	459(3)	506(0)	334(2)	392(3)	304(1)	383(0)

코스닥 시장 주요지표

		13년말	8/20(수)	8/21(목)	8/22(금)	8/25(월)	8/26(화)	8/27(수)
주가지표	KOSDAQ	499.99	561.96	562.52	566.35	564.40	568.24	567.23
	등락폭	3.22	-0.70	0.56	3.83	-1.95	3.84	-1.01
	시가총액(억원)	1,192,921	1,369,397	1,370,855	1,378,291	1,372,985	1,382,523	1,383,969
이동평균	20일	496.17	551.22	551.19	551.53	551.61	552.37	553.64
	60일	513.21	546.47	546.70	547.00	547.24	547.55	547.90
	120일	524.20	548.23	548.50	548.82	549.12	549.43	549.73
거래량지표	거래량(천주)	234,608	324,458	325,389	361,023	362,658	341,781	349,306
	5일	259,262	309,411	314,228	327,478	341,684	347,462	353,371
	20일	277,395	322,573	322,512	321,993	324,814	325,755	326,929
	거래대금(억원)	9,928	23,146	21,524	21,268	22,963	22,778	24,250
발행주식수	(천주)	20,957,247	21,486,725	21,499,293	21,511,079	21,514,986	21,530,793	21,530,868
이격도	(%,20일)	101	102	102	103	102	103	102
투자심리선	(10일)	50	60	60	70	70	70	70
VR	(%,20일)	55	75	92	116	94	116	115
ADR	(%,20일)	81	81	81	86	82	88	92
상승종목	(상한)	574(6)	440(16)	405(13)	538(12)	313(4)	521(10)	418(14)
하락종목	(하한)	341(2)	500(3)	539(1)	396(0)	632(2)	412(0)	523(2)

해외 주요증시 및 상품가격

		13년말	8/20(수)	8/21(목)	8/22(금)	8/25(월)	8/26(화)	8/27(수)
해외주요증시	NIKKEI225	16,291.31	15,454.45	15,586.20	15,539.19	15,613.25	15,521.22	15,534.82
	Shanghai 종합	2,097.53	2,240.21	2,230.46	2,240.81	2,229.27	2,207.11	2,209.47
	HangSeng H	10,770.69	11,059.27	10,909.40	11,033.56	11,104.41	11,123.20	11,098.76
	대만 TWI	8,623.43	9,288.05	9,253.38	9,380.10	9,390.62	9,393.96	9,485.59
	S&P 500	1,841.07	1,986.51	1,992.37	1,988.40	1,997.92	2,000.02	
	DOW JONES	16,504.29	16,979.13	17,039.49	17,001.22	17,076.87	17,106.70	
	NASDAQ	4,154.20	4,526.48	4,532.10	4,538.55	4,557.35	4,570.64	
상품가격	W.T.I(\$/barrel)	99.29	96.07	96.31	96.05	95.10	93.86	
	Dubai(\$/barrel)	109.01	100.76	99.50	99.93	100.33	100.78	
	브렌트유(\$/barrel)	109.02	102.28	102.63	102.29	102.65	102.50	
	금(\$/oz)	1,196.50	1,291.92	1,276.80	1,280.09	1,276.90	1,281.24	
	은(\$/oz)	19.47	19.48	19.44	19.43	19.36	19.37	
	구리(\$/ton)	7,387.50	7,010.00	7,015.00	7,076.00	휴장	7,054.00	
	알루미늄(\$/ton)	1,800.25	2,076.00	2,059.00	2,063.00	휴장	2,083.00	
	아연(\$/ton)	2,105.50	2,356.00	2,362.00	2,352.00	휴장	2,358.00	
	납(\$/ton)	2,230.75	2,259.00	2,247.00	2,253.50	휴장	2,251.50	
	옥수수(\$/bushel)	4.24	3.68	3.69	3.72	3.68	3.65	
	소맥(\$/bushel)	6.01	5.50	5.56	5.62	5.55	5.57	

환율 및 금리

		13년말	8/20(수)	8/21(목)	8/22(금)	8/25(월)	8/26(화)	8/27(수)
Foreign Exchange	USD/KRW	1,055.40	1,022.60	1,023.60	1,017.70	1,020.20	1,016.80	1,014.30
	USD/JPY	105.15	103.27	103.77	103.75	104.13	103.85	103.89
	JPY/KRW(100)	1,003.71	990.22	986.41	980.92	979.74	979.10	976.32
	USD/CNY	6.0615	6.1438	6.1537	6.1546	6.1531	6.1533	6.1451
금리(%)	CALL	2.51	2.24	2.24	2.24	2.24	2.23	
	CD(91일물)	2.66	2.42	2.42	2.41	2.41	2.40	2.40
	회사채(AA-)	3.29	2.96	2.96	2.96	2.94	2.91	2.90
	회사채(BBB-)	8.98	8.69	8.69	8.69	8.67	8.64	8.63
	국고채(3년물)	2.86	2.58	2.58	2.58	2.57	2.54	2.53
	미 3개월물 국채	0.061	0.020	0.010	0.015	0.015	0.020	
	미 10년물 국채	2.97	2.43	2.41	2.40	2.38	2.40	

증시 주변자금 및 펀드 동향

		13년말	8/20(수)	8/21(목)	8/22(금)	8/25(월)	8/26(화)	8/27(수)
자금동향 (단위: 억원)	고객예탁금	142,118	156,271	156,411	153,462	151,906	152,022	
	실질고객예탁금 증감	-6,489	3,294	-1,435	-2,089	1,590	-13	
	신용융자(거래소+코스닥)	41,938	51,116	51,356	51,491	51,797	51,814	
	미수금	929	1,138	1,243	1,320	1,401	1,162	
펀드 설정잔액 (단위: 십억원)	주식형	85,378	77,896	77,569	77,641	77,409	77,320	
	주식혼합형	9,882	10,193	10,179	10,154	10,145	10,141	
	채권혼합형	22,687	23,816	24,112	24,186	24,364	24,545	
	채권형	56,057	63,316	63,363	63,394	63,406	63,450	
	MMF	67,726	92,370	93,168	91,398	90,932	90,941	
펀드 자금 순유출입 (단위: 십억원)	국내 주식형 펀드	-38	-201	-25	107	4	27	
	해외 주식형 펀드	10	-14	-28	-16	-25	-21	

투자자별 매매동향

KOSPI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 분	투신	사모펀드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금융	금융투자	국가/지자체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2013' 누계	-53,971	-2,382	-25,446	17,295	101,947	-6,554	15,894	3,799	50,582	34,111	-56,390	-26,134
2014' 누계	-35,649	-5,321	-16,404	6,738	36,537	-6,377	-29,362	-7,679	-57,518	79,749	-8,755	-12,181
2014/7 누계	-17,170	-1,981	-3,240	3,029	236	-437	3,365	-6,276	-22,474	40,701	-15,603	-2,581
2014/8 누계	-6,710	-913	-2,174	-3,828	1,988	-166	-1,544	-1,832	-15,179	15,414	5,905	-6,134
8/27 매도	3,205	772	455	1,371	1,934	117	1,648	208	9,710	11,471	21,386	672
8/27 매수	2,890	627	269	1,410	2,201	116	2,309	335	10,157	11,979	20,636	472
8/27 순매수	-315	-145	-186	39	268	-1	660	127	447	508	-750	-200

KOSPI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단위: 억원)

순매수 상위		순매도 상위	
종목	대금	종목	대금
KODEX 레버리지	312.1	삼성전자	549.6
삼성증권	178.0	SK하이닉스	288.6
신한지주	141.6	호텔신라	206.6
KB금융	134.3	현대제철	123.4
LG	124.2	삼성전기	107.8
SK텔레콤	116.3	KODEX 인버스	94.1
NAVER	110.2	POSCO	93.2
아모레퍼시픽	105.6	NHN엔터테인먼트	87.8
KT	104.3	CJ	75.0
이마트	95.2	LG화학	74.3
기아차	93.3	현대차	73.7
KT&G	86.3	코웨이	64.3
기업은행	85.1	롯데케미칼	61.2
롯데쇼핑	71.8	현대글로비스	55.1
제일기획	64.6	현대중공업	49.6
만도	57.4	한국가스공사	46.9
우리금융	57.0	SK이노베이션	43.7
현대위아	56.9	고려아연	41.4
아모레퍼시픽우	54.6	삼성SDI	36.8
한화	54.4	한진해운홀딩스	32.8

* 음영부분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혹은 순매도 종목임

KOSPI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단위: 억원)

순매수 상위		순매도 상위	
종목	대금	종목	대금
삼성전자	774.4	호텔신라	426.9
현대제철	152.6	아모레퍼시픽	167.5
LG디스플레이	131.5	한국전력	115.6
LG화학	120.9	SK하이닉스	103.0
삼성생명	114.5	SK텔레콤	101.9
KB금융	112.0	KT&G	92.0
현대차	109.9	LG	89.0
신한지주	97.7	GKL	67.1
삼성증권	83.3	우리금융	66.4
LG유플러스	61.4	베이직하우스	60.3
SK이노베이션	56.5	KT	52.6
하나금융지주	53.6	현대위아	45.5
빙그레	52.7	아모레퍼시픽우	45.1
CJ	41.8	현대차2우B	39.5
삼성중공업	41.5	제일기획	39.4
LG전자	39.6	삼성화재	38.3
POSCO	39.3	한전KPS	33.8
BS금융지주	37.3	현대산업	31.8
삼성카드	32.8	고려아연	31.5
BGF리테일	31.5	현대건설	29.5

KOSDAQ 투자주체별 매매동향

(단위: 억원)												
구 분	투신	사모펀드	은행	보험	연기금	기타금융	금융투자	국가/지자체	기관계	외국인	개인	기타
2013' 누계	760	-1,176	-910	-1,045	3,919	-2,700	-2,293	881	-13,471	32,260	3,287	-9,152
2014' 누계	-3,404	-1,048	-161	1,284	3,189	-2,185	-511	544	-5,348	6,022	16,709	-9,193
2014/7 누계	-811	-257	-15	421	1,571	-468	-325	-155	-38	473	3,005	-3,534
2014/8 누계	-252	256	-70	140	-601	-261	-137	284	-641	-1,258	2,580	-679
8/27 매도	436	143	38	187	308	14	440	25	1,592	1,575	20,989	172
8/27 매수	449	91	34	159	313	33	364	27	1,470	1,103	21,589	170
8/27 순매수	13	-52	-5	-28	5	19	-76	2	-122	-472	600	-2

KOSDAQ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단위: 억원)			
순매수 상위		순매도 상위	
종목	대금	종목	대금
게임빌	58.2	씨젠	80.6
삼성엘앤에스	50.8	다음	57.7
내츄럴엔도텍	22.8	삼보모터스	48.1
CJ E&M	21.4	컴투스	25.6
에스에프에이	21.0	이지바이오	23.7
바이로메드	18.3	위메이드	21.5
한국토지신탁	16.2	KT뮤직	17.0
서울반도체	13.6	에스엠	15.5
인터파크INT	10.6	선데이토즈	14.6
다나와	8.7	조이맥스	11.4
오스템임플란트	8.3	성우하이텍	11.4
코나아이	8.2	성광벤드	10.9
네오위즈인터넷	7.6	와이지-원	10.0
KH바텍	6.5	우리산업	9.4
포스코 ICT	6.4	웹젠	9.0
리홈쿠첸	6.3	네오아레나	8.7
서한	5.7	덕산하이메탈	8.2
블루콤	5.6	실리콘웍스	6.8
GS홈쇼핑	5.5	KG모빌리언스	6.4
레고켐바이오	5.4	바이오랜드	6.0

* 음영부분은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 혹은 순매도 종목임

KOSDAQ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종목

(단위: 억원)			
순매수 상위		순매도 상위	
종목	대금	종목	대금
메디톡스	48.8	다음	229.8
셀트리온	40.4	컴투스	72.3
성우하이텍	28.5	위메이드	63.6
서울반도체	24.9	내츄럴엔도텍	53.9
크레듀	15.2	씨젠	45.9
루멘스	10.4	게임빌	36.1
오스템임플란트	9.1	MPK	11.4
원익IPS	8.7	블루콤	11.4
삼보모터스	7.3	코나아이	10.8
솔브레인	7.1	차바이오텍	10.8
CJ오쇼핑	6.4	이지바이오	9.4
삼천리자전거	6.1	리홈쿠첸	9.0
이오테크닉스	5.9	키이스트	8.3
휴비츠	5.7	와이지엔터테인먼트	7.6
아이센스	5.5	테스	6.8
CJ E&M	5.3	바이로메드	6.6
실리콘웍스	5.0	알톤스포츠	6.5
네오위즈홀딩스	5.0	디지털조선	6.5
한글과컴퓨터	4.8	세운메디칼	6.4
선데이토즈	4.4	ISC	6.3

Economic Calendar

일 자	시 간	항 목	해 당	실 제	예 상	이 전
8/18	23:00	NAHB 주택시장지수	8월	55	53	53
8/19	21:30	CPI(전월대비)	7월	0.1%	0.1%	0.3%
	21:30	주택착공건수	7월	1093K	968K	893K
8/21	03:00	FOMC 의사록 공개				
	22:45	마켓 미국 제조업 PMI	8월	58	55.6	55.8
	23:00	필라델피아 연준 경기 전망	8월	28	19.4	23.9
	23:00	선행지수	7월	0.9%	0.6%	0.3%
8/25	21:30	시카고 연방 국가활동 지수	7월	0.39		0.12
	22:45	마켓 미국 종합 PMI	8월	58.8		60.6
	23:00	신규주택매매	7월	412K	425K	406K
	23:30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	8월	7.1		12.7
8/26	21:30	내구재 주문	7월	22.6%	11.0%	0.7%
	22:00	S&P 케이스실러 주택가격지수	6월	172.33		170.64
	23:00	소비자 기대지수	8월	92.4	88.2	90.9
	23:00	리치몬드 연방 제조업지수	8월	12		7
8/28	21:30	GDP 연간화 QoQ	2Q		3.9%	4.0%
	21:30	개인소비	2Q			2.5%
	23:00	미결주택매매	7월		-0.5%	-1.1%
8/29	00:00	캔사스시티 제조업 활동	8월			9
	22:00	ISM 밀워키	8월			63.87
	22:45	시카고 구매자협회	8월		56.2	52.6
	22:55	미시간대 기대지수	8월			79.2

자료: Bloomberg, 증권선물거래소, Briefing.com, 국내기업 실적 예상치는 FnGuide 컨센서스 순이익, 국외는 Briefing.com 예상치 EPS 기준
참고: A: 추정, P: 예비, F,T: 확정, K: 1천, M: 백만, B: 십억, T: 조, W: 원, \$: 미국 달러, RMB: 중국 위안, 일정은 한국시간

Key Event

일 자	시 간	예정된 주요 이벤트
8/21	03:00	FOMC 의사록 공개 / 마켓 미국 제조업 PMI
8/28	21:30	GDP 연간화 QoQ

자료: Bloomberg, 현대증권 참고 : 일정은 한국시간 기준

- 당사는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 의견 분류: 산업: Overweight(10%이상), Neutral(-10~10%), Underweight(-10%이상) / 기업: Strong BUY(30%이상), BUY(10~30%), Marketperform(-10~10%), Underperform(-10%이상) (주가 —, 목표주가 —)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동 조사분석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 작성자는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 투자 의견 분류: 산업: Overweight(10%이상), Neutral(-10~10%), Underweight(-10%이상) / 기업: Strong BUY(30%이상), BUY(10~30%), Marketperform(-10~10%), Underperform(-10%이상) (주가 —, 목표주가 —)
- 이 보고서는 고객들에게 투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계약의 청약 또는 청약의 유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는 당사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와 정보에 근거하여 해당일 시점의 전문적인 판단을 반영한 의견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개별 투자는 고객의 판단에 의거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이 보고서는 어떠한 형태로도 고객의 투자판단 및 그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의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보고서의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 이 보고서는 학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므로, 학술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 통보하여 동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